

『재물보』·『본초강목』과의 비교를 통해 본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특징

오보라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한문학 전공

achwobr@hanmail.net

I. 머리말

II. 『물명고』·『재물보』·『본초강목』의 분류항 배열

III.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특징

IV. 표제어 배열을 통해 본 『물명고』의 의의

V. 맺음말

I. 머리말

서파(西陂) 유희(柳僖, 1773~1837)가 저술한 『물명고(物名考)』는 19세기의 대표적인 물명서(物名書)로, 그 독특한 분류 체계 및 구조로 그동안 학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물명고』는 ‘물(物)’을 크게 ‘유정류(有情類)’와 ‘무정류(無情類)’, ‘부동류(不動類)’와 ‘부정류(不靜類)’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각 카테고리 내에서 다시 하위 분류를 시도했다. 즉 유정류는 ‘우충(羽蟲), 수족(獸族)[모충(毛蟲)/나충(蠃蟲)], 수족(水族)[인충(鱗蟲)/개충(介蟲)], 곤충(昆蟲)’으로, 무정류는 ‘초(草), 목(木)’으로, 부동류는 ‘토(土), 석(石), 금(金)’으로, 부정류는 ‘화(火), 수(水)’로 분류했다. 유정류/무정류, 부동류/부정류로 구분한 『물명고』의 대분류는 다른 유사(類書)나 물명서에서는 보기 드문 분류 방식이다. 그런데 유희가 이러한 분류 방식을 취한 까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남기지 않아, 『물명고』의 분류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유희가 하위 분류에서 ‘수족(獸族)’, ‘수족(水族)’과 같은 중간 분류명을 사용함에 따라, 『물명고』의 분류 층위를 몇 단계로 볼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물명고』의 분류 체계 및 구조에 관해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물명고』의 체계 및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물명고』의 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최경봉은 유정류/무정류는 생물(生物)에, 부동류/부정류는 무생물(無生物)에 해당하는 범주라고 하면서, 유희가 존재론적 특성에 따라 분류 자질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한 것을 『물명고』의 특징으로 꼽았다.¹ 이후 『물명고』의 체계 및 구

* 이 글은 2023년 11월 1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어문생활사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물명고』의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최경봉, 『물명고』의 온톨로지적 어휘론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17(2005), 21~42쪽.

조는 주로 이만영(李晩永)이 저술한 『재물보』와의 관련성 속에서 연구되었는데, 홍윤표는 『물명고』의 대분류에 보이는 양분법은 창의적이고도 현대적이지만, 『물명고』는 『재물보』를 대본(臺本)으로 하여 분류를 세분화하고 표제어를 취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² 신중진 역시 『물명고』는 『재물보』를 바탕으로 주석을 간략화한 것이지만, 『물명고』의 대분류 체계와 일부 항목의 주석에는 유희만의 독자적 지식이 드러난다고 했다.³

황문환은 『재물보』의 영향력을 강조한 기존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물명고』의 차별성을 밝히고자 하여, 유희가 이만영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유희가 『재물보』의 분류 체계·표제화 및 기술 내용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⁴ 황문환·김정민은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물보』·『물명고』는 ‘『재물보』 4책본 → 『재물보』 8권본 → 『물명고』’ 순서로 편찬되었으며, 『재물보』와 『물명고』의 대본 관계는 『재물보』 8권본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는 점을 밝혔다.⁵

한편, 『물명고』의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오보라는 유희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유정류/무정류의 대립 체계를 세우고 ‘우충(羽蟲), 모충(毛蟲), 나충(蠃蟲), 인충(鱗蟲), 개충(介蟲)’ 등의 분류에는 「고공기(考工記)」를 참고하되, 곤충(昆蟲) 및 초·목에서는 사물의 존재론적 특성을 기준으로 독자적 분류를 시도했음을 밝혔다.⁶ 이후 김일권은 불교의 유정무정(有情無情) 지각론과 성리학 오행통색론(五行通塞論), 『태극도설』의 태극동정론(太極動靜論)과 능

2 홍윤표, 『『물명고』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2013), 200~208쪽.
 3 신중진,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물명고』와 『재물보』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2014), 진단학회, 105~127쪽.
 4 황문환, 「유희의 『재물보』 비판을 통해 본 『물명고』의 차별성: 1807년 유희가 이만영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2016), 79~113쪽.
 5 황문환·김정민, 「『재물보』의 이본 계열과 선후 관계」, 『국어사연구』 35(2022), 175~213쪽.
 6 오보라, 「서파 유희 『물명고』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 『대동한문학』 58(2019), 245~287쪽.

동능정론(能動能精論), 본초서의 오행적 광물 분류 등을 고찰하여,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 유희가 독자적인 분류 체계를 고안했음을 밝혔다.⁷

이상의 연구를 통해, 유희가 『재물보』를 대본으로 삼되 자신의 문헌 고증 및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표제항과 주석을 조정하여 『물명고』를 저술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물명고』의 거시 분류 체계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적 맥락도 정리된 바 있다.⁸ 하지만 여전히 『물명고』 분류 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희가 『물명고』의 분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물명고』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분류 체계 및 분류 기준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 시각에서 표제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명고』가 『재물보』의 어떠한 항목을 취사선택했는지, 표제어 배열의 선후 순서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물명고』에 추가된 표제항은 무엇인지 등 『물명고』와 『재물보』 사이의 세부적인 동이(同異)를 비교함으로써 『물명고』의 독자적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⁹

한편, 김일권은 『재물보』가 분류 체계 및 표제어 배열, 주석 등에서 『본초강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분석한 바 있는데,¹⁰ 『물명고』에도 『본초강목』

7 김일권, 「19세기초 유희 『물명고』의 분류명 내원과 분류 체계 연구」, 『규장각』 59(2021), 225~271쪽.

8 위의 논문, 225~271쪽.

9 『물명고』의 분류 체계 파악을 위해 세부 항목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조영준도 언급한 바 있다. 조영준은 『물명고』 연구를 위해 DB 구축 및 어휘 집계 등의 기초적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물명고』의 분류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목의 배열 순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영준, 「유희의 『물명고』에 수록된 어휘의 분류와 집계」, 『진단학보』 137(2021), 103~128쪽.

10 김일권, 「『재물보』의 자연물 분류 체계 고찰과 『광재물보』 분류의 『본초강목』 의거성」, 『장서각』 49(2023), 278~321쪽.

의 내용이 상당수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물명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초강목』·『물명고』·『재물보』 간의 3자 대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¹¹ 이에 이 글에서는 『본초강목』·『재물보』와 『물명고』를 비교하여,¹² 『물명고』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물명고』·『재물보』·『본초강목』의 분류항 배열

물명서의 분류 체계가 본초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¹³ 최근에는 『재물보』와 『본초강목』의 분류 체계 및 수록 어휘를 비교한 연구 성과,¹⁴ 더 나아가 『재물보』·『광재물보』·『본초강목』 3종의 저술을 비교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¹⁵ 그런데 『재물보』의 분류 체계와 표제어 배열이 『본초강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자세

11 3자 대조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신중진은 “거시구조상에서 세부 분류는 『재물보』가 『물명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저본으로서의 영향 관계의 시작은 중국의 『본초강목』인데 특히 『물명고』는 세부 부류 전반에서 일치하는 바이고 『재물보』는 세부 부류 중에서 地譜와 物譜에서 일치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여, 『본초강목』·『재물보』·『물명고』가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음을 언급했다. 신중진, 앞의 논문, 111~112쪽.

12 이 글의 비교 작업에서 대본으로 삼은 판본은 다음과 같다. 『물명고』는 장서각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되, 鮎貝房之 소장본을 참조했다. 『재물보』는 4책본 계열과 8권본 계열이 있는데, 이 중 『물명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은 8권본이다. 황문환·김정민, 앞의 논문, 207쪽. 따라서 이 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재물보』는 8권본 계열 중 하나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대본으로 했다. 『본초강목』은 문연각 사고전서본을 대본으로 했다.

13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2014), 88~111쪽; 장유승, 『조선 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 체계』, 『한국고전연구』 30(2014), 193~198쪽.

14 조정아, 『『본초강목』과 『재물보』의 분류 체계와 어휘 항목 비교』, 『한국민족문화』 80(2021), 3~41쪽.

15 김일권, 앞의 논문(2023), 278~321쪽.

히 밝혀진 반면, 『물명고』와 『본초강목』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물명고』에는 ‘본경(本經)’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신농본초경소(神農本草經疏)』 계통의 본초경 서적이라고 생각된다. 유희는 본초경(本草經)의 문체를 본떠 「희보본초(戲補本草)」라는 희작(戲作) 소품(小品)을 지을 정도로 본초학 서적에 관심이 많았으며,¹⁶ 『물명고』에서도 이시진의 언급을 종종 인용했다. 아울러 『물명고』에는 『본초강목』에 보이는 음양오행적 자연관 및 약용적 관점을 수용한 흔적도 보인다. 『물명고』의 「부동류(不動類)·토(土)」, 「부정류(不靜類)·수(水)」, 「부정류(不靜類)·화(火)」에 각각 ‘제토이성(諸土異性)’, ‘제수이성(諸水異性)’, ‘제화이용(諸火異用)’을 수록한 것은 『본초강목』 「수부(水部)」의 ‘제수유독(諸水有毒)’ 및 「과부(果部)」의 ‘제과유독(諸果有毒)’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명고』 「부정류·화」에서 표제어를 ‘양화(陽火) → 음화(陰火)’의 순서로 배열한 것도 ‘화’를 ‘양화’와 ‘음화’로 구분한 『본초강목』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⁷ 그 밖에 「부정류·수」에서 ‘운무(雲霧)·우(雨)’ 등의 표제어 대해 맛과 효능 위주로 혼석을 달고,¹⁸ ‘강심수(江心水)·제수(濟水)·토질수(土疾水)·조석천(潮汐泉)’과 같이 약용으로 쓰이는 표제어를 추가한 것 역시 『본초강목』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¹⁹

16 오보라, 「서파 유희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211~220쪽.

17 위의 논문, 269~270쪽.

18 柳僖, 『物名考』 「不靜類·水」, “雲霧[大海高山雲霧 皆可收取] 吉雲[五色雲着草 凝成如露 甘味延年東方朔云] ○雨[春雨味甘 夏雨味燥 秋雨味澁 冬雨味酸] 梅雨水[黃梅雨水 性同灰汁 可以澹衣] 分龍水[龍昇之時 驟雨有臭] 半天河[竹籬頭及空水穴中水] 上池水[同] ○雪[古人以雪水烹茶 云解酒毒] 霰[外락눈이] 騰雪水[大寒后初雪也 久藏不敗 可淹果實丸 藥家亦用之] ○靛[取以納味惡之醬] ○露[取草木葉上者 性味隨其草木不同] 繁露水[秋露繁濃時 作盤收取 服之] 百花路[百花上收取服之] …”.

19 柳僖, 『物名考』 「不靜類·水」, “江心水[取江中深沈之水 味品乃高] 江簪[江心水直脈] 冷[江心水

표1-『물명고』·『재물보』·『본초강목』의 분류항 배열

物名考		才物譜		本草綱目		
有情類	羽蟲	物譜 권7	羽蟲	禽部	권47	水禽類
					권48	原禽類
	권49		林禽類/山禽類			
	獸族 毛蟲 羸蟲		毛蟲	獸部	권50	畜類
					권51	獸類/鼠類/寓類怪類
	水族 鱗蟲		鱗蟲	鱗部	권43	龍類/蛇類
					권44	魚類
	介蟲		介蟲	介部	권45	龜魚類
					권46	蚌蛤類
	昆蟲		昆蟲	蟲部	권39~40	卵生類
권41		化生類				
권42		濕生類				
無情類	草	物譜 권8	穀	穀部	권22	麻麥稻類
					권23	稷粟類
					권24	菽豆類
					권25	造釀類
			菜	菜部	권26	葷辛類
					권27	柔滑類
					권28	蔬菜類
			果	果部	권29	五果類
					권30	山果類
					권31	夷果類
권32	味類					
권33	蔬類/水果類					
			草	草部	권12~13	山草類
					권14	芳草類
					권15~16	隰草類
					권17	毒草類
					권18	蔓草類
					권19	水草類
					권20	石草類
					권21	苔類/雜草

物名考		才物譜		本草綱目		
	木	地譜 권1 일부	木	木部	권34	香木類
			竹		권35	喬木類
				권36	灌木類	
				권37	寓木類/苞木類/雜木類	
不動類	土	土·金·玉·石	金石部	권8	金類/玉類	
	石			권9~10	石類	
	金			권11	鹵石類	
不靜類	火	火	火部	권6	火	
	水	天譜(雨·露·霜·雪·雹)/地譜(水)	水部	권5	天水類 地水類	

이처럼 『본초강목』은 『재물보』 뿐만 아니라 『물명고』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 관계는 분류 체계, 수록 사물의 범주, 훈석의 내용 등 여러 층위에서 논할 수 있다. 본고는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특징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류항 및 표제어 배열 측면에서 3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1〉은 『물명고』를 기준으로 하여, 『물명고』의 각 분류항에 대응하는 『재물보』·『본초강목』의 분류항을 재배치한 것이다. 참고로 『본초강목』은 총 5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물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5~52’까지인데, 〈표1〉에서는 ‘권38 복기부(服器部)’와 ‘권52 인부(人部)’를 제외했

有南冷北冷之名 辨水味者稱之]; “濟水[出河東 性重 不入地中 爲衛百泉 過河至齊地 爲歷下七十二泉 東阿井亦其水也 故可煮膠疏濁 我東甲山厚治嶺有水 飲之直達臍下 可煮膠 不下阿井]; “土疾水[自古醫家 只有不服水土之病 而未嘗言水有土疾者 而我東往往峽邑之水中 有濁澱 能令人身長反短 指末結大 及唾血咯血等證 并稱土疾 蓋其水源 積腐諸毒樹葉 又或山谷四衛 霧氣沈下 及大海瘴毒所致 通歸之土疾 未必盡水性也]; “潮汐泉[我東嶺南閩慶地有泉 每日潮汐候時 湧出如射 俄而乾涸 或云耽羅國多有之]”. 한편, ‘江心水’에 대해서는 『類錄』, 『醫藥類』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유희는 스승 尹光顏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의약류」에 기록해 두었고 이는 『물명고』 훈석에 요약되어 실렸다.

다.²⁰ 『물명고』에는 해당 분류항에 속하는 사물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1>을 토대로 하여, 『물명고』·『재물보』·『본초강목』 가운데 동물·식물 범주의 분류항을 살펴보기로 한다.²¹

본초서 또는 물명서의 분류항 배열 순서는 ‘세상의 질서 및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본초서 중에서도 『신농본초경』과 같이 옥석부(玉石部)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본초집요(本草集要)』처럼 초목부(草木部)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²² 『본초강목』의 경우에는 수부(水部)를 중시하여 이를 맨 앞에 배열했으며, 식물은 ‘초부(草部)-곡부(穀部)-채부(菜部)-과부(果部)-목부(木部)’의 순서로, 동물은 ‘충부(蟲部)-인부(鱗部)-개부(介部)-금부(禽部)-수부(獸部)’의 순서로 배열했다. 이시진은 이러한 배열 순서를 취한 까닭에 대해, 범례(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농본초경) 구본(舊本)에는 옥(玉)·석(石)·수(水)·토(土)가 혼동되어 있고 여러 충(蟲)·인(鱗)·개(介) 부류가 구별되지 않아, 혹은 충류(蟲類)가 목부(木部)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혹은 목류(木類)가 초부(草部)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지금 각각 나열하여 부(部)를 만들되, 맨 앞에 수부(水部)·화부(火部)를 두고 그다음에 토부(土部)를 두었으니, 수(水)·화(火)가 만물의 맨 처음이 되고 토(土)가 만물

20 권38 服器部에는 ‘絹帛, 布綿, 禪襪, 汗衫’ 등 醫用 기물 76종이 수록되어 있고, 권52 人部에는 ‘髮髮, 亂髮, 頭垢, 耳塞’ 등 사람에게서 얻어진 재료 중 義에 해가 되지 않는 것 35종이 수록되어 있다.

21 토·석·금·화·수의 경우, 『재물보』·『물명고』·『본초강목』의 수록 범주가 큰 차이를 보인다. 『본초강목』의 경우 약용 사물을 수록했고, 『재물보』는 산천 지리에 관한 표제어로 수록 범주를 확대했으며, 『물명고』는 산천 지리에 대한 표제어와 약용 표제어를 절충하여 수록했다. 이와 달리 동물·식물에 관한 부분은 수록 범주가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 글에서는 동물·식물에 관한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22 백명훈·신상원, 「역대 본초서의 본초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36-3(2023), 98~101쪽.

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금부(金部)·석부(石部)를 두어 토부(土部)를 이었다. 그다음에 초부(草部)·곡부(穀部)·채부(菜部)·과부(果部)·목부(木部)를 두었으니, 작은 것从小부터 큰 것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그다음에 충부(蟲部)·인부(鱗部)·개부(介部)·금부(禽部)·수부(獸部)를 두고 인부(人部)로 끝맺었으니, 천한 것从小부터 귀한 것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²³

『본초강목』 이전의 가장 대표적인 본초서는 『신농본초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옥석부’를 맨 앞에 두었다. 이는 옥석약(玉石藥)을 상품약(上品藥)으로 보는 신선방사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²⁴ 이후로 『오보본초(吳普本草)』 및 당송대(唐宋代)의 많은 본초서들은 『신농본초경』을 따라 ‘옥석부’를 맨 앞에 두었다. 이와 달리 『본초강목』은 ‘수부(水部)’를 맨 앞에 두었는데, 이는 세계상에 대한 『본초강목』의 인식이 『신농본초경』과는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위 예문에서 이시진은 “수·화가 만물의 맨 처음이 되므로[水·火爲萬物之先]” ‘수부’와 ‘화부’를 맨 앞에 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주역』의 오행 생성 원리에 의거한 것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 상(上)」에 수록된 정현(鄭玄)의 주석에 “하늘은 1로서 북쪽에서 수를 낳고, 땅은 2로서 남쪽에서 화를 낳고[天一生水於北, 地二生火於南] ….”라고 했는데, 송나라 주희(朱熹)는 「태극도설주해(太極圖說註解)」에서 이를 원용하여 “하늘은 1로서 수를 낳고, 땅은 2로서 화를 낳는다[天一生水 地二生火].”라고 했다. 이시진은 이러한 오행 생성

23 李時珍, 『本草綱目』 「本草綱目凡例」, “舊本玉石水土混同 諸蟲鱗介不別 或蟲入木部 或木入草部 今各列爲部 首以水火 次之以土 水火爲萬物之先 土爲萬物母也 次之以金石 從土也 次之以草穀菜果木 從微至巨也 次之以服器, 從草木也 次之以蟲鱗介禽獸 終之以人 從賤至貴也”.

24 오재근·김용진, 『『동의보감』 「탕액편」의 본초 분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3-5(2010), 58쪽.

원리에 근거하여 ‘수부’와 ‘화부’를 맨 앞에 두었다. 그리고 『본초강목』에서 식물과 동물은 사물의 대소(大小)와 귀천(貴賤)을 기준으로 삼아, 작은 것·천한 것을 먼저 배치하고 큰 것·귀한 것을 나중에 배치했다. 요컨대, 『본초강목』은 도가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기존 본초서의 분류항 배열에서 벗어나, 오행 및 대소·귀천 등을 기준으로 사물을 재배열하여 분류를 체계화했다.

그런데 『재물보』와 『물명고』는 분류 체계 측면에서 『본초강목』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나, 분류항의 배열은 『본초강목』을 따르지 않았다. 동물의 범주에서 『재물보』와 『물명고』는 모두 ‘우충(羽蟲), 모충(毛蟲)[나충(羸蟲) 포함], 인충(鱗蟲), 개충(介蟲), 곤충(昆蟲)’의 순서로 배치했다. 식물의 경우, 『재물보』는 ‘곡(穀)·채(菜)·과(果)·초(草)·목(木)·죽(竹)’의 순서로, 『물명고』는 ‘초(草)·목(木)’의 순서로 배열했다. 그렇다면 『재물보』와 『물명고』의 분류항 배열은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된 것인가.

『재물보』와 『물명고』는 『본초강목』과 달리 별도의 범례를 남기지 않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항을 배열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동물에 관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분류법들을 참조해 보았을 때, 『재물보』와 『물명고』의 동물 배열은 오충설(五蟲說)과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의 내용을 절충한 것이라 추정된다.

오충설은 중국 진한(秦漢) 시대에 성립되어 널리 유포된 전통적인 동물 분류법으로,²⁵ 『대대례기(大戴禮記)』에서는 ‘오충’을 ‘우충(羽蟲)·모충(毛蟲)·갑충(甲蟲)·인충(鱗蟲)·나충(倮蟲)’으로 제시했다.²⁶ 따라서 『재물보』와 『물명

25 오충설의 來源에 대해서는 김일권, 앞의 논문(2021), 247~250쪽 참조.

26 高明(註釋), 『易本命』, 『大戴禮記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523쪽, “故曰 有羽之蟲 三百六十 而鳳凰爲之長 有毛之蟲 三百六十 而麒麟爲之長 有甲之蟲 三百六十 而神龜爲之長 有鱗之蟲 三百六十 而蛟龍爲之長 倮之蟲 三百六十 而聖人爲之長 此乾坤之美類 禽獸萬物之數也”.

고』가 ‘우충’·‘모충’을 맨 앞에 둔 것은 오충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오충설이 『재물보』와 『물명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각 분류항의 첫 번째 표제어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본초강목』에서는 ‘금부(禽部)’의 맨 앞에 ‘수금류(水禽類)’인 ‘학(鶴)’이 나온다. 이와 달리 『재물보』·『물명고』에서는 모두 ‘우충’의 맨 앞에 ‘봉황(鳳凰)’과 ‘악작(鸞鷟)’이 배열되어 있다. 이는 바로 오충설에서 ‘봉황’을 ‘우충’의 수장으로 본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밖에도 『재물보』와 『물명고』는 ‘모충’의 맨 처음에 ‘기린(麒麟)’을, ‘인충’의 맨 처음에 ‘용(龍)’을, ‘개충’의 맨 처음에 ‘귀(龜)’를 배열했는데, 이 역시 ‘기린·신귀(神龜)·교룡(蛟龍)’을 각각 ‘모충·갑충·인충’의 수장으로 보는 오충설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물명고』에서는 『재물보』의 ‘모충’에 해당하는 사물을 ‘모충’과 ‘나충’으로 나누게 되면서, ‘모충’의 첫 번째 표제어로서 ‘기린’을 제시하고 ‘나충’의 첫 번째 표제어로서 ‘추우(騶虞)’를 제시했다. 추우는 기린과 더불어 상서(祥瑞)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동물이다.

그런데 오충설만으로는 『재물보』와 『물명고』의 분류항 배열순서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오충설에 보이는 갑충(=개충)·인충의 순서가 『재물보』·『물명고』와는 다르며, 오충설에서는 곤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동의보감』 「탕액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탕액편」은 『동의보감』 내에서 본초서의 성격을 갖는 편이다. 「탕액편」의 세부 분류를 보면, ‘수부(水部)-토부(土部)-곡부(穀部)-인부(人部)-금부(禽部)-수부(獸部)-어부(魚部)-충부(蟲部)-과부(果部)-채부(菜部)-초부(草部)-목부(木部)-옥부(玉部)-석부(石部)-금부(金部)’의 순서로 되어 있다. 여기서 동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서 보면, 「탕액편」은 ‘금부(禽部)-수부(獸部)-어부(魚部)-충부(蟲部)’의 순서로 동물을 배열했다. 이는 『재물보』·『물명고』에서 동물을 ‘우충, 모충, 인충, 개충, 곤충’ 순서로 배열한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재물보』와 『물명고』에서 동물에 해당하는 분류항 배열 순서는 오충설과 『동의보감』 「탕

액편」을 절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동의보감』 「탕액편」의 분류항 배열 순서는 『재물보』·『물명고』의 식물 배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물보』는 『본초강목』과 달리 식물을 ‘곡·채·과·초·목·죽’의 순서로 배열했는데, 곡부(穀部)를 식물의 가장 앞에 배열했다는 점이 「탕액편」과 동일하다. 『물명고』는 ‘곡·채·과·초’를 ‘초’로 한데 묶어 식물의 분류항이 『재물보』와 다르지만, 『물명고』 「무정류·초」에서도 곡(穀)을 맨 처음에 배열했다. 즉 「탕액편」, 『물명고』, 『재물보』 모두 ‘곡’을 식물의 맨 앞에 둔 것이다.

‘곡부’를 앞쪽에 배치한 것은 다른 본초서와는 다른 『동의보감』의 독특한 면모인데,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곡부’를 앞에 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천지간에 사람의 성명(性命)을 기르는 것은 곡식뿐이다. … 크게 보하면서도 배설이 잘 되어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 사람에게 크나큰 공이 있는 것이다.²⁷

이 예문은 허준이 『본초강목』에서 발췌한 구절을 『동의보감』에 수록한 것이다.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허준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곡’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탕액편」의 앞부분에 ‘곡부’를 배치했다. 『재물보』와 『물명고』에서도 ‘곡’이라는 표제어 아래에 “풀 열매로, 사람이 먹어서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훈석을 달아,²⁸ 인간의 생명 유지라는 측면에서 ‘곡’을 중시했다. 이처럼 『재물보』와 『물명고』에서 ‘곡부’를

27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天地間 養人性命者 惟穀耳 … 大補而滲泄 乃可久食而無厭 是大有功於人者也”.

28 李晩榮, 『才物譜』 권8 「物譜3」, “穀[草實 人所食以爲糧者]”; 柳僖, 『物名考』 「無情類·草」, “穀[草實 人所食以爲糧者]”.

중시한 것은 『동의보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 『물명고』·『재물보』·『본초강목』에 수록된 동물·식물의 분류항 배열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초강목』은 전통적인 본초서의 분류항 배열에서 벗어나, 오행 생성 원리와 사물의 대소·귀천에 의거하여 동물·식물을 재배열했다. 둘째, 『재물보』·『물명고』는 분류 체계면에서 『본초강목』을 따르면서도, 분류항 배열 순서는 『본초강목』을 따르지 않았다. 셋째, 『재물보』와 『물명고』는 동물의 분류항 배열순서가 동일한데, 이는 전통적인 오충설과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넷째, 식물의 경우, 『재물보』와 『물명고』는 분류항의 항목 및 배열 순서가 일치하지 않으나, ‘곡부’를 중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역시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분류항의 배열에 있어서는 『재물보』와 『물명고』가 강한 친연성을 보이며, 이는 『본초강목』의 분류항 배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각 분류항에 수록된 표제어들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재물보』와 『물명고』는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재물보』의 표제어 배열 순서는 오히려 『본초강목』과 유사하고 『물명고』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재물보』의 경우, ‘수금류(水禽類)·원금류(原禽類)·임금류(林禽類)·산금류(山禽類)’와 같은 『본초강목』의 하위 분류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재물보』의 각 분류항에 수록된 표제어 배열은 상당 부분 『본초강목』의 하위 분류항 배열 순서를 따랐다.²⁹ 반면 『물명고』는 『본초강목』의 하위 분류항 배열 순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각 분류항 내에서 『물명고』는 『재물보』·『본초강목』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9 『재물보』는 『본초강목』의 분류와 배열 순서를 거의 따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竹’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항을 설정하여 표제어를 재배열했다. 『재물보』 ‘죽’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훈석이 있다. “植物之中 有名曰竹 非草非木【竹譜】”.

Ⅲ.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특징

1. 유정류의 표제어 배열

『물명고』 「유정류」에는 ‘우충-수족(獸族)[모충/나충]-수족(水族)[인충/개충]-곤충’의 순서로 분류항이 배열되어 있다. 각 분류항별로 표제어 배열 순서가 『재물보』·『본초강목』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정류·우충」을 살펴보자. 『물명고』의 「우충」과 『재물보』의 「우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³⁰

『才物譜』 01鳳凰 02鸞鷲 水禽類 03鶴 04鵠 05鶻鷄 06鶻鷄 07鷺 08紅鶻 09鶻
10雁 11鴨 12鳧 13鶻鷄 14鶻 15鴛 16鶻鷄 17秃鶻 18鶻鷄 19鶻鷄 20鶻澤虞 21鶻
鶻 22鶻 23鶻鷄 24鶻鷄 25睢鶻 26魚狗 27鶻 28信天綠 29漫畫 30鶻鷄 31蚊母鳥 原
禽類 32鶻 33雉 34吐綬雞 35鶻鷄 36白鶻 37鶻鷄 38竹雞 39秧鶻 40鶻鷄 41鶻 42鶻
43鶻 44造化鳥 45鶻 46鶻 47雀 48巧婦鳥 49剖葦 50燕 51胡燕 52鶻鷄 林禽類 53鶻
鶻 54屬 55戴勝 56鶻鷄 57鶻鷄 58百舌 59鶻 60練鶻 61啄木鳥 62慈鳥 63鳥鶻 64鶻
65山鶻 66鶻嘲 67杜鶻 68鶻鷄 69秦吉了 山禽類 70孔雀 71翡翠 72鷹 73鶻 74鶻
75隼 76鶻 77鶻 78鶻鷄 79晨風 80鶻 81花鶻 82鶻 83鶻鷄 84休留 85鶻 86鶻 87鶻
88精衛 89鶻鷄鶻

30 『재물보』의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본초강목』의 표제어를 채택한 부분이다. 『물명고』의 인용문에서 볼드체로 된 부분은 『재물보』에서는 표제어가 아니지만 『물명고』에는 표제어로 수록된 경우이다. 여기서, 표제어는 ‘擡頭’되어 표기된 단어만을 가리킨다. 즉 『재물보』에는 관련어로 수록되었으나 『물명고』에는 대두된 단어로 수록된 경우에도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이하 『재물보』 및 『물명고』 인용문의 강조 표시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

『物名考』 01鳳凰 02鴛鴦 原禽類 03雉 4白鷗 05鶻雞 06雞 07吐綬雞 08鷓鴣 09鷓
 鳩 10竹雞 1秧雞 12鷓雞 13鶉 14鴛 水禽類 15鶴 16鷓 17鷓鴣 18鷓鴣 19白鷓子
 20鷓 21鷓鴣 22雁 23鴨 24鳧 25鷓鴣 26鷓鴣 27鷓鴣 28鷓鴣 29鷓鴣 30鷓 31鷓
 32秃鷓 33雉鳩 34鷓鴣 35鷓 36鷓 37信天緣 原禽類 38鷓 水禽類 39魚狗 原禽類
 40鷓鴣 41造化鳥 42鷓 43鷓 林禽類 44鷓鴣 45戴勝 46伯勞 47鳳 水禽類 48蚊母鳥
 林禽類 49鷓鴣 50百舌 51鷓 52鷓鴣 53秦吉了 54杜鵑 55練鵲 56山鷓 57啄木 58慈
 鳥 59鴉鳥 60鷓 山禽類 61孔雀 62鷹 63角鷹 64鷓 65角鷓 66鷓 67鷓 68松鷓 69燕鷓
 70隼 71鷓 72鷓 原禽類 73燕 74雀 75巧婦鳥 76茶鳥 77鷓鴣 78元央 79鷓鴣 80同穴
 鳥 81鷓鴣 山禽類 82鳩 83鷓鴣 84鷓鴣 85周周 86精衛

앞의 예문 중간에 표시된 ‘수금류(水禽類)·원금류(原禽類)·임금류(林禽類)·산금류(山禽類)’ 등의 항목은 『재물보』와 『물명고』에는 없는 것으로, 『본초강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위 예문에서 『물명고』와 『재물보』는 모두 맨 앞에 ‘01봉황’과 ‘02악작’을 배열했다.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는 오충설에 근거하여 ‘우충’의 주장인 ‘봉황’을 맨 앞에 배열한 것이다.

그런데 ‘02악작’ 다음의 표제어 배열을 보면, 『재물보』와 『물명고』 사이에 많은 차이가 보인다. 『재물보』의 경우, ‘02악작’ 다음에 ‘수금류’에 해당하는 표제어들을 배열했고, 이하의 표제어 배열도 ‘원금류 → 임금류 → 산금류’의 순서로 『본초강목』의 배열을 거의 준수했다. 이와 달리 『물명고』는 표제어 배열 순서를 대폭 조정했다. 『물명고』는 ‘02악작’에 이어서 ‘원금류 [03치(雉)~14여(鴛)]’를 배열하고, ‘수금류 [15학(鶴)~37신천연(信天緣)]’를 배열한 뒤 다시 ‘원금류 [38홀(鷓) → 수금류 [39어구(魚狗)] → 원금류 [40척령(鶴鷓)~42합(鷓)]’의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했다. 이처럼 『물명고』는 『재물보』·『본초강목』의 표제어 배열 순서를 상당 부분 바꾸었다.

그렇다면 『물명고』는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표제어 배열 순서를 바꾼 것인가? 이는 『물명고』에 수록된 훈석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물명고』에서 ‘02악작’ 다음에 ‘03치’가 배열된 까닭은 불분명하다. 표제어 ‘치’ 아래 훈석에는 ‘뺨’이라는 한글 대응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03치’ 다음에 ‘04백한(白鵞)~09자고(鷓鴣)’가 수록된 까닭은 『물명고』의 훈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04백한’ 아래에는 “산뺨와 비슷한데,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으며 꼬리의 길이는 3, 4척이다.”³¹라는 훈석이 달려 있으며, ‘05갈계(鷓雞)’ 아래에도 뺨와 비슷하다는 훈석이 달려 있다.³² 그리고 ‘06계(雞)’ 다음에 수록된 ‘07토수계(吐綬雞)’ 아래에는 닭과 비슷하다는 훈석이,³³ ‘08돌호(鷓鴣)’ 아래에는 닭과 비슷하다는 훈석이,³⁴ ‘09자고’ 아래에는 모계(母雞)와 비슷하다는 훈석이³⁵ 달려 있다. 즉 『물명고』는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사물을 연쇄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16관(鴈)~22안(雁)’의 훈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6관’ 다음에는 관과 비슷하면서 조금 작은 ‘창괄(鷓鴣)’이 배열되었고,³⁶ 그다음에는 창괄과 비슷하면서 흰색인 ‘노사(鷺鷥)’가 배열되었으며,³⁷ 그다음에는 노(鷺)와 비슷한 ‘백학자(白鶴子)’가 배열되었고,³⁸ 물새의 일종인 ‘곡(鵠)’이 이어진 뒤, ‘안(雁)’과 비슷한 ‘숙상(鷓鴣)’이 배열되고³⁹ 그 바로 다음에 ‘안(雁)’이 배열되었다.

『재물보』와 『본초강목』에서는 수금류로 분류된 ‘37신천연’과 ‘39어구’ 사

31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白鵞[似山雉 白質黑章 尾長三四尺].”

32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鷓雞[似雉 黃黑色 有毛角如冠].”

33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吐綬雞[如雞 黑毛 雜黃白點].”

34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鷓鴣[似雉 青身白頭].”

35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鷓鴣[形如母雞].”

36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鷓鴣[似鷓而稍小].”

37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鷺鷥[似鷓而白].”

38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白鶴子[似鷺而頭無絲].”

39 柳僖, 『物名考』「有情類·羽蟲」, “鷓鴣[水鳥似雁 長頸綠色].”

이에 원금류인 ‘38홀’이 끼어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명고』에는 ‘홀’ 아래에 관련어로 ‘비취(翡翠)’가 수록되어 있고, 그 아래 “비취는 어구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훈석이 달려 있다.⁴⁰ 즉 유희는 ‘홀’을 ‘어구’와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지닌 새로 인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홀’을 ‘어구’ 앞에 배열하게 되었다. 이처럼 『물명고』는 사물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표제어를 재배열했다.

이러한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특징은 다른 분류항에서도 보인다. 『재물보』 「모충」은 『본초강목』 「수부(獸部)」의 하위 분류항 배열 순서에 따라, ‘축류(畜類) → 수류(獸類) → 서류(鼠類)’의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했다. 이와 달리 『물명고』에서는 수족(獸族)을 모충과 나충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표제어를 배열했다.

『才物譜』 01麒麟 02騶虞 畜類 03馬 04御乘 05牛 06驢 07騾 08駝 09羊 10羴羯
 11狗 12豕 獸類 13獅 14虎 15豹 16象 17犀 18犛(=犛)牛 19熊 20羆 21鹿 22麋 23麇
 24麂 25麝 26獬豸 27般首 28獬 29狸 30狸 31貉 32獬 33獾 34豺 35狼 36兔 37海
 牛 38水獺 39膾膈獸 鼠類 40鼠 41蝙蝠 42鸞鼠 43鼯鼠 44鼯鼠(鼯鼠) 45鼯鼠 46貂鼠
 47黃鼠 48山鼠 49鼯鼠 50鼯鼠 51狷 寓類·怪類 52獼猴

『物名考』 [毛蟲] 01麒麟 畜類 02馬 03騾 04騾 05駝 06牛 07犀 08羊 09豕 獸類
 10鹿 11麋 12麇 13麂 14麝 15獬豸 [羸蟲] 獸類 01騶虞 02獅 03虎 04豹 05羆 06狸
 07猫 08狐 09貉(=貉) 10獬 11獾 12豺 13狼 畜類 14狗 獸類 15象 獸類 16熊 寓類·
 怪類 17獼猴 18猿 獸類 19水獺 20膾膈獸 21兔 鼠類 22鼠 23鼯鼠 24山鼠 25蝙蝠
 26鼯鼠(鼯鼠) 27青鼠 28火鼠 29蝟鼠

40 柳億, 『物名考』 「有情類·羽蟲」, “翡翠[飲啄水側 似魚狗稍大].”

우선 『물명고』가 수족(獸族)을 모충과 나충으로 나눈 것 역시 형태적 특징에 따른 것이다. 『물명고』의 훈석에 따르면, 모충은 “발굽이 있는 짐승[有蹄之獸]”이고, 나충은 “발톱이 있는 짐승으로서, 털이 짧은 것[有爪之獸 羸者毛疎也]”이다. 『물명고』는 이렇게 형태적 특징에 근거해 수족(獸族)을 둘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표제어들을 재배열했다. ‘미후(獼猴)’를 예로 들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미후’는 『본초강목』에서 ‘우류(寓類)’로 분류된 표제어로서, 『재물보』는 『본초강목』의 분류항 배열에 따라 ‘미후’를 「모충」의 맨 마지막에 배열했다. 이와 달리 『물명고』에서는 수류(獸類)인 ‘16웅(熊)’과 ‘19수달(水獺)’ 사이에 ‘17미후·18원(猿)’을 배열했다. 유희가 이렇게 배열한 이유 역시 『물명고』의 훈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명고』 ‘미후’의 훈석을 보면, 유희는 ‘미후’가 『본초강목』에서 ‘우속(寓屬)’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후’는 눈이 곰과 비슷하다는 형태적 특징이 있으므로, 유희는 여기에 착안하여 ‘웅’ 다음에 ‘미후’를 배열했다.⁴¹ 이어서 ‘미후’ 다음에는 후(猴)의 한 부류인 ‘원’을 배열했다.⁴²

이처럼 유희가 형태적 특징에 의거해 표제어를 재배열했으나, 인용문의 표제어 배열 순서를 온전히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08양(羊)’ 다음에 ‘09시(豕)’가 나오는 까닭과 ‘15상(象)’ 다음에 ‘16웅’이 배열된 까닭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물명고』는 기존의 문헌 지식을 토대로 하여 유희의 경험 지식을 반영한 저술인데, 문헌 지식과 경험 지식으로 모든 사물의 형태적 특징을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08양·09시, 15상·16웅과 같이 그 연결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41 柳僖, 『物名考』 「有情類·獸族·羸蟲」, “獼猴[狀如人 眼如熊 胡尻無毛 尾短 寓屬之最捷者 種類甚多].”

42 柳僖, 『物名考』 「有情類·獸族·羸蟲」, “猿[似猴 長臂].”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희가 형태적 특징에 근거하여 『재물보』와 『본초강목』의 표제어 배열을 대폭 수정하고자 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물명고』 「유정류」에는 사물의 형태적 특징과 더불어 생태적 특징도 함께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유희는 형태적 특징과 생태적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표제어의 분속(分屬)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러한 면모는 「인충」과 「개충」에서 드러난다.

① 『才物譜』 「鱗蟲」 龍類 01龍 02蛟 03弔 04蛟人 05鯪魚 06鼉龍 蛇類 07蛇 08石龍 09蛇醫 10守官 魚類 11鯉魚 12鯢魚 13鱠魚 14重尾魚 … 64海蛇 65鰈

『物名考』 「鱗蟲」 龍類 01龍 02蛟 03蛟人 04石龍 魚類 05鱣 06鱣 07鯪魚 08鯉 09鱣 10鯢……

② 『才物譜』 「介蟲」 龜魚類 01龜 02鼈 03蟹 04鬣魚 蚌蛤類 05蠣 06蚌 07車螯 08馬刀蛤 09蜆 10蠃蚶 11蛤蜊 12蜆 13江瑤 14魁蛤 15淡菜 …

『物名考』 「介蟲」 龜魚類 01龜 02鼈 龍類 03鼉 04吉弔(=弔) 05鯪魚 龜魚類 06鬣魚 蛇類 07蛇 龜魚類 08蟹 魚類 09鰈 蚌蛤類 10蠣蛤 11蜆 12蚌 …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물보』는 「인충」에서 『본초강목』 「인부(鱗部)」의 하위 분류항 배열 순서에 따라 ‘용류(龍類) → 사류(蛇類) → 어류(魚類)’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했으며, 「개충」에서도 『본초강목』에 의거하여 ‘귀어류(龜魚類) → 방합류(蚌蛤類)’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했다. 『물명고』는 『재물보』, 『본초강목』의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표제어에 대하여 분속을 조정했다.

먼저 『물명고』 「개충」의 ‘03타(鼉) 04길조(吉弔) 05능리(鯪魚)’와 ‘07사(蛇)’가 『재물보』에는 「인충」에 수록되어 있다. 『재물보』에서는 『본초강목』에 의거

하여 ‘03타·04길조·05능리’를 ‘용류’로 보아 「인충」에 수록했고, ‘07사’ 또한 『본초강목』을 따라 「인충」에 수록했다. 아울러 『물명고』 「개충」의 ‘09하(鰕)’도 『재물보』에는 「인충」에 수록되어 있다. 『재물보』와 『물명고』에서 모두 ‘하(鰕)’를 “새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만영과 유희가 인식한 ‘하’의 지시 대상은 똑같은 사물이었다. 하지만 『재물보』는 ‘하’를 『본초강목』의 분류항에 따라 「인충」에 수록했고, 『물명고』는 ‘하’를 「개충」에 수록했다.

『물명고』는 왜 ‘타·길조·능리·사·하’를 「인충」이 아닌 「개충」에 수록한 것인가. ‘하’의 경우, 『물명고』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 유희가 분속을 조정한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타·길조·능리·사’의 경우에는 『물명고』 훈석을 참조하여, 유희가 해당 표제어의 분속을 조정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명고』에 수록된 해당 표제어의 훈석은 다음과 같다.

鼉 [形如蜥蜴 皮可冒鼓.]

吉弔 [亦只曰弔. 龍種 蛇頭龜身 甚大.]

鮫鯉 [形如鼉而短 遍身有片甲 爪鬣如鐵 能陸能水.] ….

蛇 [毒蛇. 바암. ○自古及今 皆以蛇爲鱗蟲 無異辭. 然目驗其身 實無鱗也 只是大觚之文 相比相連 大與龜文同理. 且其能脫者 豈非介蟲之所爲乎? 古人以龜蛇爲玄武 武是介甲之象. 又能穴處服氣 一如龜性. 故今斷以爲介蟲. 下士聞之 必大笑之.]

위 인용문을 보면, ‘타’는 “복을 메을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동물이며, ‘길조’는 거북의 몸을 하고 있고, ‘능리’는 ‘타’와 비슷한 데다가 온몸에 개갑(介甲)이 있다. 이처럼 유희는 ‘개갑’이 있다는 형태적 특징에 근거하여, ‘타·길조·능리’를 「인충」이 아닌 「개충」에 배열했다.

이어서 『물명고』에는 ‘사’를 「개충」에 배열한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유희는 ① 자신이 직접 보니 뱀의 등에는 비늘이 없었다는 점, ② 뱀이 허

물을 벗는 것은 개충의 속성이라는 점, ③ 예로부터 귀사(龜蛇)를 현무(玄武)라고 불렀다는 점, 이 세 가지에 근거하여 뱀은 인충이 아닌 개충이라고 보았다. 즉 유희는 ‘비늘이 없다.’는 뱀의 형태적 특징과 ‘허물을 벗는다.’라는 뱀의 생태적 특징에 근거하여 표제어의 분속을 바꾼 것이다.

그 밖에 「곤충」에서도 사물의 형태적 특징과 생태적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표제어를 재배열한 모습이 포착된다.

『才物譜』 卵生類 01蠶 02蜂 03蜜蜂 04土蜂 05大黃蜂 06蠟蠟 07五倍子 08蟪蟻 09粘蜚 化生類 10蛻蝗 11蜉蝣 12蟬 13天牛 14螻蛄 15螢 16蟲蠶 17蟣蚶 18促織 19竈馬 20蝗 21樗鷄 22(虫+糞)螂 23鼠婦 24蠹蟲 25胡蝶 ….

『物名考』 卵生類 01蠶 02蠟 03胡蝶 04蜂 05白蠟蟲 06五倍子 07粘蜚 08蟪蟻 09蝗 10蟋蟀 11黃蚘 12蜻蜒 13蟲 14蚊 15蠅 16蠹蠟 17蛻蝗 18蟬 19螻蛄 20鼃龜 21麤蟲 22斑猫 23負版 24守瓜 25強蜉 ….

위 예문에서, 『재물보』는 ‘01잠(蠶)-02봉(蜂)-03밀봉(蜜蜂)-04토봉(土蜂)’의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한 반면, 『물명고』는 ‘01잠(蠶)-02촉(蠟)-03호접(胡蝶)-04봉(蜂)’의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했다. 즉 『물명고』는 누에와 벌 부류 사이에 ‘촉’과 ‘호접’을 집어넣은 것이다. 여기서 ‘촉’은 『재물보』에는 보이지 않으며, ‘호접’은 『재물보』에서 25번째에 배열되어 있다. 『물명고』에서 ‘촉’이라는 표제어를 추가한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그 훈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촉(蠟) [고금의 글에서 대부분 잠(蠶)·촉(蠟)을 함께 거론하는데, 촉은 야잠(野蠶)이다. 혹은 야견(野繭)·연견(緣繭)등을 촉에 해당시키기도 하는데, 실제 촉은 고치가 되지 못한다. 단지 연(繭)·조(蠟)의 꼬리에 단단한 가시가 있는 것과 같

은 것으로, 잠과 비슷할 뿐이다. 지금 그 종류를 아래 나열한다.]⁴³

이 예문에 보이는 것처럼, 유희는 ‘촉’이 곧 ‘야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잠’ 바로 뒤에 그 유사종인 ‘촉’을 배열했다. 이를 통해 ‘고치[繭]가 될 수 없는 생태적 특징’ 및 ‘잠과 비슷하다는 형태적 특징’을 함께 고려한 결과, 유희가 ‘촉’이라는 표제어를 새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촉’ 다음에 ‘호접’이 배열된 까닭은 다음 언급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치(豸) [음은 ‘지(池)’이다. 발이 있는 것을 ‘충(蟲)’이라 하고, 발이 없는 것을 ‘치’라 한다. 발이 있는 것과 발이 없는 것의 구별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한다. 잠·촉의 부류는 꿈틀거리며 기어다니, 비록 배 아래에 미세한 이빨이 있으나 모두 ‘발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변하여 호접이 되면, 정강이가 있고 발이 있어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므로 ‘발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⁴⁴

위 내용은 『유록(類錄)』 「화리류(化理類)」에도 수록되어 있는데,⁴⁵ 이를 통해 유희가 곤충의 형태와 생태적 특징에 따라 곤충을 분류·배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유희는 「곤충」의 맨 앞에 발 없이 기어다니는 곤충인 ‘잠’과 ‘촉’을 배열하고, 이어서 발이 있는 대표적 곤충인 ‘호접’을 배열했다. 그리고 나서 ‘호접’에 뒤에 ‘봉’, ‘백랍충(白蠟蟲)’ 등 발이 있는 곤충을 배열한 것이다.

이상 『물명고』 「유정류」에 수록된 표제어들을 각 분류항별로 『재물보』와 대

43 柳僖, 『物名考』 「有情類·昆蟲」, “蠶[古今文字 多以蠶蠶同舉 蠶 野蠶也 或以野繭蠶繭等當之 然其實蠶不能成繭 只是蠶綽之尾有堅刺者 似蠶而已 今開列于下]”.

44 柳僖, 『物名考』 「有情類·昆蟲」, “豸[音池 有足曰蟲 無足曰豸 所謂有足無足之別 人多不知 如蠶蠶之類 連卷而行 雖有腹下之細齒 總謂之無足 及其化而成胡蝶也 有脛有足 可以立可以步 故謂之有足]”.

45 『유록』 「화리류」의 내용은 오보라, 앞의 논문(2019), 271쪽에 수록되어 있다.

조해 보았다. 『재물보』가 상당 부분 『본초강목』의 표제어 배열을 준수한 것과 달리, 『물명고』는 표제어 배열 순서를 대폭 조정했다. 표제어 배열에 있어 유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사물의 형태적 특징이다. 유희는 형태적 특징이 유사한 사물끼리 인접하여 나열되도록 표제어 배열 순서를 조정했다. 아울러 유희는 사물의 형태적 특징과 함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표제어 배열 순서를 조정하거나 표제어의 분속을 조정했다.

2. 무정류의 표제어 배열

사물의 형태적·생태적 특징에 의거해 표제어 배열을 조정하는 면모는 「무정류」에도 드러난다. 다만 「무정류」의 경우, 형태적·생태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많지 않고,⁴⁶ 주로 사물의 형태적 특징에 의거해 표제어를 재배열했다.

「무정류·초」는 표제어 배열 측면에서 특히 『본초강목』·『재물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희는 『본초강목』·『재물보』의 ‘곡·채·과·초·목’ 분류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초’와 ‘목’으로 이분화했다. 이로 인해 『재물보』 및 『본초강목』에서 ‘곡·채·과·초·목’에 각각 배속되어 있던 표제어들이, 『물명고』에서는 뒤섞이게 되었다.⁴⁷ 유희는 『물명고』에서 ‘초’

46 「무정류」에서 생태적·형태적 특징을 함께 고려한 예로는 ‘竹’을 꼽을 수 있다. 『물명고』에서는 「무정류·초」의 ‘箬’·‘葭」 다음에 ‘죽’을 수록했는데, ‘죽’의 훈석은 다음과 같다. 柳僖, 『物名考』「無情類·草」, “竹[대]○古人多以竹入木類 以其壽故也 然讀『爾雅』在草中 今究其節葉根稈 與蘆葦爲族 且其一番成形之後 不復加長者 又是草之所爲 則不過以不凋之草論”. 이 훈석에 따르면, 유희는 ① 죽의 형태가 갈대와 비슷하다는 점, ② 죽은 한 번 형태가 갖추어진 뒤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데 이는 초의 속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죽을 ‘목’이 아닌 ‘초’에 배속했다.

47 『물명고』 「무정류·목」에 수록된 표제어는 총 79항으로, 표제어 배열 순서 측면에서는 『재물보』·『본초강목』과 차이를 보이지만, 표제어 수록 범주는 『재물보』·『본초강목』의 ‘木部’

에 속하는 표제어들의 배열 순서를 완전히 바꾸었으면서도 그 까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무정류·초」의 표제어 배열은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정류·초」 표제어들을 현대 식물 분류 체계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물명고』 「초」에 수록된 어휘를 『재물보』·『본초강목』의 분류항과 비교해 보면,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순서는 ‘곡·초·죽·과’에 속하는 사물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어 체계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물명고』의 표제어를 현대 식물 분류의 분류항과 비교해 보면, 「무정류·초」에 수록된 사물은 ‘벼목 식물 → 생강목 식물’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현대 식물 분류는 형태학적 특징에 의한 분류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현대 식물 분류에서 같은 과에 속하는 사물들이 『물명고』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배열되었다는 점은, 유희가 형태적 특징에 의거해 표제어를 배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물명고』 「유정류·초」에 수록된 표제어 1~100번을 『본초강목』·『재물보』 및 현대 식물 분류의 분류항⁴⁸과 비교해 〈부

와 대체로 유사하다. 한편, 『물명고』 「무정류·초」는 수록된 표제어가 총 279항으로 그 양이 방대하며, 『재물보』·『본초강목』의 ‘곡부·채부·과부·초부’에 수록된 표제어는 물론이고 ‘목부’에 수록된 표제어 일부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재물보』·『본초강목』와 대비되는 『물명고』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정류·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물명고』 「무정류」 중에서도 ‘초’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48 〈부록〉의 표에서 현대 식물 분류 항목은 Engler 분류 방식을 사용했다. Engler(1822~1930)는 형태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물 분류 체계를 수립했는데, 우리나라의 식물도감 제작 초기에 이창복 도감과 이영노 도감에서 이 Engler 분류 방식을 따랐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식물목록도 오랫동안 Engler 분류 방식에 의해 과명을 표기하다가, 근래 개편된 방식에서는 Engler 분류 방식과 더불어 DNA 분석에 의한 분류 방식인 APG(Angiosperm Phylogeny Group)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은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물명고』와 현대 식물 분류 방식을 비교하는 까닭은 『물명고』가 형태적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표2-『물명고』 「초」수록 어휘의 분류항 비교

『물명고』 수록 어휘	『새물보』 분류항	『본초강목』 분류항	현대 식물 분류	
01稻 02稷 03藟黍 04梁 05稗 06稂	穀	穀部(稷粟類)	버목	
07菰	草	草部(水草類)		
08荊三稜		草部(芳草類)		
09莞草		草部(水草類)		
10薏苡	穀	穀部(稷粟類)		
11小麥		穀部(麻麥類)		
12白茅 13菅茅	草	草部(山草類)		
14箬 15蔴	竹	草部(隰草類)		
16竹 17水竹葉		木部(苞木類)		
18甘蔗	果	果部(蔬類)		
19藎荷	草部	草部(隰草類)		생강목
20薑 21蓬莪茂 22山薑 23高良薑	草部	草部(芳草類)		
24縮砂蜜		-		
25益智子 26肉豆蔻		草部(芳草類)		
27芭蕉	草部	草部(隰草類)		

록)의 표로 정리했다. <부록> 표의 비고란에는 『물명고』의 혼석 및 표제어의 관련어 가운데, 표제어 배열을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했다. 이렇게 『물명고』 「무정류·초」의 표제어를 현대 식물 분류와 비교한 결과, 『물명고』의 식물 분류가 현대 분류학에 버금갈 정도로 형태적 특징을 철저히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형태적 특징’이라는 기준에 의해 표제어를 재배열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명고』가 ‘형태적 특징’에 의해 표제어를 어떻게 배열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위한 것이므로, Engler 분류 방식의 과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유희는 「무정류·초」의 맨 앞에 ‘도(稻)’를 수록하고, 이어서 ‘02직(稷) 03촉서(藟黍) 04량(梁) 05패(稗) 06삼자(糝子)’를 배열했는데, 이는 모두 『재물보』·『본초강목』의 ‘곡부’에 해당하는 사물이다. 그런데 『물명고』는 ‘삼자(糝子)’ 뒤에 ‘곡부’의 사물을 배치하지 않고, ‘08형삼릉(荊三稜) 09완초(莞草) 10의이(薏苡) 11소맥(小麥) 12백모(白茅) 13관모(菅茅)’ 등 『재물보』·『본초강목』에서 ‘초부’로 분류된 사물들을 배치했다. 이 중 ‘08형삼릉 09완초’는 현대 식물 분류상 벼목 사초과에, ‘10의이~13관모’는 벼목 벼과에 해당하는 식물이다. 『물명고』에 수록된 혼석을 통해서도 ‘08형삼릉~13관모’가 형태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대 식물 분류에서 같은 목에 속한다는 점은 이들 사물이 형태적으로 유사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물명고』에서 ‘13관모’ 다음에 ‘14약(箬) 15가(蔞) 16죽(竹) 17수죽엽(水竹葉) 18감자(甘蔗) 19양하(蘘荷)’를 배열한 점도 주목을 요한다. 해당 사물에 대한 『물명고』의 혼석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箬 [根莖似小竹，節籜與葉，似蘆荻而柔韌.]

15蔞 [有數種，最大而中空，可以代竹用者.]

16竹

17水竹葉 [生水中，葉如竹葉而短小.]

18甘蔗 [畦種叢生，葉似竹而內實.]

19蘘荷 [似竹葉而根如薑.]

20薑

유희는 ‘관모’ 뒤에, 벼과이면서도 형태적 특징이 대나무와 비슷한 ‘약’·‘가’를 이어서 제시한 뒤, ‘죽’을 배열했다. ‘죽’ 다음에는 대나무와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수죽엽’과 ‘감자’를 배열하고, 이어서 대나무와 생강

의 형태적 특징을 동시에 보이는 ‘양하’를 배열했다. 그리고 ‘양하’ 뒤에 ‘강’을 배열했다. 그렇다면 유희는 「초」에 속하는 식물들을 형태적 유사성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을 연결하는 지점에는 앞·뒤 그룹의 속성을 모두 지닌 사물을 배열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물명고』의 「초」는 ‘A그룹 → A·B그룹의 공통 분모 → B그룹 → B·C그룹의 공통 분모 → C그룹’의 순서로 표제어 배열을 이어 간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이 「초」의 표제어 배열에 완벽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유희가 『물명고』의 훈석에서 종종 언급한 것처럼, 각 표제어에 해당하는 실제 사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헌 지식과 경험 지식만으로는 사물의 형태적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물명고』는 「초」의 표제어 배열에 있어 ‘형태적 특징에 의한 배열’이라는 기준을 완벽히 적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록〉의 표를 살펴보면, 형태적 유사성에 의거해 표제어 배열이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23고량강(高良薑)’ 다음에는 고량강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24축사밀(縮砂蜜)’이 이어진다. 이어서 ‘강(薑)’의 한 종류인 양하(蘘荷)와 유사한 ‘25익지자(益智子)’가 배열되고, 그다음에는 익지자의 유사종인 초두구(草豆蔻)와 비슷한 육두구(肉荳蔻)가 이어진다.⁴⁹

‘31마해(馬薺) 32산자고(山茨菰) 33자고(慈姑) 34수선(水仙) 35파극천(巴戟天) 36맥문동(麥門冬) 37구(韭)’의 배열 역시 형태적 유사성에 따른 것이다. ‘마해’는 ‘자고’와 비슷하므로 마해 뒤에 ‘산자고’가 나오고, 이어서 ‘자고(茨菰)’와 동일한 사물인 ‘자고(慈姑)’가 배열되어 있다. 이어 해(薺)·산(蒜)·총(葱)과 유사성을 보이는 ‘수선’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맥문동과 비슷한 ‘파극

49 ‘23고량강 24축사밀 25익지자’에 대한 훈석은 〈부록〉에 밑줄로 표시했다. 이하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도 〈부록〉에 동일하게 표시했다.

천'이, 그 다음에는 파극천·구(韭)와 공통분모를 보이는 '맥문동'이, 그다음에는 '구(韭)'가 나온다.

〈부록〉 표의 말미에서도 형태적 특징에 근거한 표제어 배열 양상을 볼 수 있다. '82대두(大豆)'부터 '92운실(雲實)'까지는 콩과에 해당하는 사물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92운실' 뒤에는 콩과이면서 동시에 덩굴풀의 형태를 지닌 '93자위(紫葳)'가 나오고, 이어서 덩굴풀의 형태를 지닌 '97갈(葛) 98천세루(千歲壘) 99벽려(薜荔) 100포도(蒲桃)'가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유희는 사물의 형태적 특징에 근거해 표제어 배열 순서를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 『물명고』는 식물의 표제어 배열에 있어 약효나 산지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형태적 특징'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했다.

IV. 표제어 배열을 통해 본 『물명고』의 의의

본초학은 동아시아 전통 의학에서 약물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지만, 자연물을 탐구하고 분류하는 박물학으로도 발전해 갔다. 도홍경(陶弘景, 452~356)은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注)』를 저술할 때 대분류 방식으로서, 약성(藥性)에 따른 '삼품(三品) 분류'를 채택하지 않고 자연물을 '옥석(玉石)·초목(草木)·충수(蟲獸)·과(果)·채(菜)·미식(米食)'으로 분류하는 자연 속성 분류를 채택했다. 이로써 본초학은 일찍부터 박물학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후 이시진의 『본초강목』은 효용 중심의 본초학이 박물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⁵⁰

50 山田慶兒, 『物のイメージ・本草と博物學への招待』(東京: 朝日出版社, 1994), 29~32쪽.

이처럼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본초학은 단순히 약물을 연구하는 학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각종 사물을 탐구하고 분류하는 학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본초학의 성격은 본초학이 약물학 이외의 방면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명고』와 『재물보』가 본초학 지식을 자연물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틀로 전승·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본초학의 이러한 특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본초강목』이 자연물 분류를 체계화·구체화하여 본초학이 박물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자연 속성에 따른 분류만을 채용한 것은 아니다. 『본초강목』은 강(綱)에 있어서는 자연 속성 분류를 채용하여, 광물은 ‘수(水)·화(火)·토(土)·금(金)·석(石)’으로, 식물은 ‘초부(草部)·곡부(穀部)·채부(菜部)·과부(果部)·목부(木部)’로, 동물은 ‘충부(蟲部)·인부(鱗部)·개부(介部)·금부(禽部)·수부(獸部)’로 분류했다. 하지만 목(目), 즉 하위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예컨대, ‘금부(禽部)’를 ‘수금류(水禽類)·원금류(原禽類)·임금류(林禽類)·산금류(山禽類)’로 구분한 것은 서식 환경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수부(獸部)’를 ‘축류(畜類)·수류(獸類)·서류(鼠類)·우류(寓類)·괴류(怪類)’로 분류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 형태, 습성 등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또 ‘충부(蟲部)’를 ‘난생류(卵生類)·화생류(化生類)·습생류(濕生類)’로 분류한 것은 곤충의 성장 원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초부(草部)’를 ‘산초류(山草類)·방초류(芳草類)·습초류(隰草類)·독초류(毒草類)·만초류(蔓草類)·수초류(水草類)·석초류(石草類)·태류(苔類)·잡초(雜草)’로 분류한 것은 서식 환경과 효용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본초강목』이 비록 박물학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저술의 주된 목적은 약물 변별 및 효과적인 사용에 있다. 따라서 『본초강목』은 약물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목’에서 약물의 실용·효용에

따른 분류를 접목했다. 이러한 ‘목’의 분류는 비체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초가(本草家)들의 약물 검색과 활용을 용이하게 했다.⁵¹

그런데 『재물보』와 『물명고』는 『본초강목』·『동의보감』 등의 본초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그 저술 목적이 ‘약물의 효과적 사용’에 있지 않다. 『재물보』와 『물명고』는 표제어에 대한 정의, 이칭, 속성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유사(類書)의 성격도 띠고 있는 물명서이다.⁵² 그렇다면 『본초강목』 ‘목’의 복합적인 분류가 본초가·의사에게는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물명서 편찬자에게는 비체계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희는 물명서 편찬자의 입장에서 『본초강목』의 복합적인 분류 방식에 대해 문제 의식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물명서 편찬에 대한 유희의 시각은 이만영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편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유희는 『재물보』를 열람한 뒤 이만영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분목(分目)의 수라든지 서법(書法)의 차이 같은 것은 역시 몇 번이고 정성 들여 다시 손대야 합니다.”라고 하여 분류 문제를 지적하고⁵³ 표제항의 조정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했다.⁵⁴ 박학(博學)에 뜻을 두었던 유희⁵⁵는 『재물보』와 같은 저술은 분목·서법·표제항 등의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51 山田慶兒, 「本草における分類の思想」, 『東アジアの本草と博物學の世界』(京都: 思文閣, 1995), 20쪽.

52 장유승, 앞의 논문, 186~187쪽.

53 柳億, 『方便子書牘』1 「與李進士【晚永○四月】」, “至如分目之多少書法之同異 亦當三致意而再下手”.

54 柳億, 『方便子書牘』1 「與李進士【晚永○四月】」, “所著之志 旣欲發前未發 而若復以駢贅加之 則將無以拒支離之譏 是其數四段 全錄他書者 【如我東郡縣國忌及歷代世次人身穴名五服九九數之類】可以削去也 所著之志 旣欲明示度數 而若有可東可西之物 則徒貽貪多之累 無濟於實効 是其某物之貌 某事之聲 【如閃閃色動貌馮築墻聲之類】及諸書中偶然一二字之僭用者 【如覺毛詩大也 于諸左傳置之類】刪落也”.

55 柳億, 『方便子書牘』1 「與李進士【晚永○四月】」, “鄙人於博學一事 舊曾留意”.

기울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물보』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물명고』의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명고』는 실제로 『본초강목』·『재물보』의 표제어 배열을 대폭 수정했다. 특히 『본초강목』의 ‘목’에 해당하는 분류항, 즉 하위 분류항을 『물명고』는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유희가 ‘목’의 분류 기준에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유희는 『본초강목』 ‘목’의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표제어들을 재배열했다. 그 기준은 바로 자연물의 형태적·생태적 특징이다. 유희는 형태적 특징이 유사한 사물들이 인접하여 나열될 수 있도록 표제어 배열을 조정했으며, 때로는 형태적 특징과 생태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제어의 분속을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은 본초가·의사들이 약물을 활용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박물가(博物家)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연물 분류·기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명고』에 보이는 표제어 배열은 본초학 지식을 박물학의 범주로 전환·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준에 『물명고』를 본초서의 일종으로 보거나,⁵⁶ 본초서를 전범으로 삼은 물명서라고 본 시각⁵⁷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물명고』의 분류 체계 및 훈석, 표제어 배열 및 선정 등이 『본초강목』을 위시한 본초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물명고』는 표제어의 배열에 있어 용약(用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연물의 속성에 따른 체계적 배열을 중시했다.⁵⁸ 그렇다면 『물명고』는 본초서의 지식·분류가 박물

56 미키 사카에(저), 오준호(역), 『朝鮮醫書誌(增修版)』(대전: 문진, 2022), 56쪽; 高橋亨, 「物名考解説」, 『朝鮮學報』 16(1960), p. 193.

57 오보라, 앞의 논문(2019), 274쪽.

58 이는 『물명고』의 「유정류」·「무정류」에 보이는 특징으로, 「부동류」·「부정류」에서는 표제어

가에 의해 수용·변형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그동안 『물명고』·『재물보』와 『본초강목』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누차 언급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표제어 배열 순서’의 측면에서 3자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물명고』와 『재물보』는 『본초강목』의 대분류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각 분류항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는 『본초강목』을 따르지 않았다. 『물명고』와 『재물보』는 오충설, 『동의보감』 「탕액편」의 배열 순서 등에서 영향을 받아, 동물에서는 ‘우충-모충-인충-개충-곤충’의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하고, 식물에서는 ‘곡부’를 첫머리에 두었다. 이처럼 『물명고』와 『재물보』는 분류항 배열 순서가 비슷하다. 하지만 각 분류항 내의 표제어 배열에서, 『물명고』와 『재물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재물보』가 『본초강목』의 하위 분류항, 즉 ‘목’의 배열 순서를 대체로 따른 반면, 『물명고』는 『재물보』·『본초강목』의 표제어 배열 순서를 대폭 수정했다.

『물명고』는 사물의 형태적·생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표제어 배열을 재조정하고, 때로는 표제어의 분속을 바꾸기도 했다. 유희는 『본초강목』 목에서 복합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사물을 분류·나열한 것에 문제점을 느끼고, ‘자연물의 속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표제어 배열의 체계화를 도

배열의 논리적 정합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수 있다. 「부동류」·「부정류」의 표제어 배열 및 관련어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기약한다.

모한 것이다. 『물명고』의 새로운 표제어 배열은 본초서의 지식이 박물가에 의해 수용·변형되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물명고』의 표제어 배열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물명고』의 한계이기도 하다. 앞으로 『물명고』에 수록된 표제어와 관련어, 훈석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부록-『物名考』 「無情類·草」 표제어의 분류항 비교

현대 식물 분류 (영어식 방식)	『本草綱目』 /『才物譜』	無情類·草의 표제어	비고
벼목 벼과	穀部·麻麥稻類	01稻	
		02稷	
		03藟黍	
		04粱	
		05稗	
		06稂子	
-	草部·水草類	07菰	
벼목 사초과	草部·芳草類	08荊三稜	
	草部·水草類	09莞草	
벼목 벼과	草部·稷粟類	10蕪苳	
	草部·麻麥稻類	11小麥	
	草部·山草類	12白茅	
		13菅茅	
	木部·寓木類 /木部·竹	14箬	根莖似小竹 節籜與葉 似蘆荻而柔韌.
		15葭	有數種 最大而中空 可以代竹用者.
16竹			
-	草部·毒草類	17水竹葉	生水中 葉如竹葉而短小.
벼목 벼과	果部·蘆類	18甘蔗	畦種叢生 葉似竹而內實.
생강목 생강과	草部·隰草類	19蘘荷	似竹葉而根如薑.
	菜部·葷辛類	20薑	
-	草部·芳草類	21蓬莪茂	亦是老薑所化 江南者爲薑黃 江北者爲蓬朮.
-		22山薑	葉似薑 花赤色 子似草豆蔻 根如杜若.
생강목 생강과		23高良薑	
-		24縮砂蜜	苗葉似高良薑.
-		25益智子	葉如蘘荷. ※하위어: 草果·草豆蔻
-		26肉豆蔻	花實似草豆蔻 而顆外有皺紋 內有斑縹紋 如檳榔而辛辣.
생강목 파초과	草部·隰草類	27芭蕉	
백합목 백합과	草部·毒草類	28玉簪花	葉如芭蕉而小.
백합목 붓꽃과		29射干	

현대 식물 분류 (영글러 방식)	『本草綱目』 /『才物譜』	無情類·草의 표제어	비고
백합목 백합과	毒草類	30萱草	
	- /菜部	31馬薺	葉如茨菰而大.
	草部·山草類	32山茨菰	冬月生 葉如水仙 亦如韭. 亦如車前.
소생식물목 택사 과	果部·水果類	33慈姑	茨菰本字.
백합목 수선화과	草部·山草類	34水仙	叢生下隲 根葉并如薺蒜 春初抽 莖如葱頭. 花大如簪頭 五尖相承黃心 宛然盞樣.
-		35巴戟天	近似牡丹 葉如麥門冬而厚大.
백합목 백합과	草部·隲草類	36麥門冬	葉大者如鹿葱 小者如韭 根如連珠 實黑而圓.
		37韭	
	菜部·葷辛類	38葱	
		39大蒜	
草部·毒草類	40藜蘆	葉似初出櫻心 又似車前 莖如蔥 白而青紫色 外有黑毛 裏如椶皮. 有花肉紅色 根如馬腸根.	
백합목 붓꽃과	草部·芳草類	41馬薺	葉似菖蒲.
난초목 난초과		42蘭花	葉如馬薺 花亦三出 黃色 或有青紫色 有微香 異於他香.
천남성목 천남성 과	草部·蔓草類	43菖蒲	
백합목 백합과	草部·山草類	44知母	似菖蒲而柔潤.
	-	45吉祥草	葉如漳蘭. 四時常不凋 夏開紫花成穗.
벼목 사초과	草部·芳草類	46莎草	葉如老韭 有脊稜 中抽一莖 三稜 開青花成穗 根鬚結子一二枚 大如羊棗.
난초목 난초과	草部·水草類	47綬草	小草 雜色如綬 疑今當歸是也.
-	草部·芳草類	48甘松香	葉細如茅草 根極繁密.
난초목 난초과	草部·山草類	49白及	葉似初生櫻苗 抽一莖 開紫花 根如菱 白色 有螺旋紋.
백합목 백합과		50黃精	葉如竹 莖有節 根如菖蒲 長一二尺.
용담목 용담과		51龍膽	葉如竹 叢生 抽根十餘條 類牛膝.
벼목 벼과	草部·隲草類	52淡竹葉	生原野 苗數村 其根一窠十鬚 上結子與烏韭同.
산형화목 산형과	草部·山草類	53柴胡	柴本此字 苗甚香 莖青紫 開黃花.

현대 식물 분류 (영글러 방식)	『本草綱目』 /『才物譜』	無情類·草의 표제어	비고
중심자목 석죽과	草部·隰草類	54瞿麥	
-		55篇蓄(편축)	葉如地廬而不尖 莖如瞿麥 開細紅花.
-	-	56白薇	葉如柳對附 山野生者節闊 沙場生者節促. 夏開紅花 八月結實 如雀瓢而殺 細根如牛膝.
중심자목 석죽과	草部·隰草類	57王不留行	多生麥地中 苗高一尺 葉如匙頭.
		58剪春羅	
통화식물목 지치과	草部·山草類	59紫草	
		60夏枯草	
통화식물목 꿀풀과	草部·芳草類	61薄荷	
		62紫蘇	※관련어 赤蘇·桂荑·紫菜[同] 蘇子[實名] 蘇麻 [種取子 搾油, 들 ㅈ]
-	穀部·麻麥稻類	63胡麻	자흑, 거문들 ㅈ ※ 관련어 脂麻[子白]
-	草部·山草類	64玄參	苗葉一如脂麻.
통화식물목 꿀풀과	草部·隰草類	65茺蔚	
통화식물목 마편초과		66馬鞭草	或曰方莖 葉如益母.
-	- /草部	67破故紙	莖高三四尺 葉如薄荷 花微紫 實如麻子.
-	菜部·葷辛類	68羅勒	一種似紫蘇 立종엽대유향 立종가생식
난초목 난초과	草部·芳草類	69蘭草(난초)	八九月 開化成穗 如雞蘇花. ※雞蘇: 꿀풀과
-		70薰草	葉如麻 兩兩對生.
통화식물목 꿀풀과		71藿香	
		72香薷	
		73荊芥	
국화목 국화과	草部·隰草類	74鬼針草	生池畔 方莖 葉有楸子 作箭鏃 著人衣如針.
중심자목 비름과		75牛膝	
국화목 국화과		76漏蘆	閩中者 莖如油麻.
쑤기풀목 삼과	穀部·麻麥稻類	77大麻	

현대 식물 분류 (영어권 방식)	『本草綱目』 /『才物譜』	無情類·草의 표제어	비고
-	穀部·喬木類	78 薛	山生 似人家麻者 疑是김삼.
아욱목 아욱과	草部·隰草類	79 苧麻	葉似苧而薄 花黃色.
	木部·灌木類	80 綿花	莖細 葉與蕎麥 花黃心紫 結實如小桃.
마디풀목 마디풀 과	穀部·麻麥稻類	81 蕎麥	
콩목 콩과	穀部·菽豆類	82 大豆	
		83 小豆	
84 菹豆			
-		85 豇豆	
콩목 콩과		86 綠豆	
		87 豌豆	
-		-	88 野豌豆
-	/菜部	89 野蚕豆	蔓似豇豆而細.
콩목 콩과	草部·隰草類	90 決明	
-	-	91 苜蓿	似決明而小.
-	/菜部		
-	草部·毒草類	92 雲實	內有子如鷄豆.
-	草部·隰草類	93 紫葳	野生 蔓引木上 化類映山紅而赭黃色 有細點. 八月 結莢如豆 其子輕薄 如馬兜鈴子.
콩목 콩과	草部·山草類	94 甘草	
	-	95 苦參	
-	-	96 草黃芪	略如苦參 而葉散附有岐尖.
-	/草部		
콩목 콩과	草部·蔓草類	97 葛	蔓草之誕節者.
-	草部·蔓草類	98 千歲果	蔓延木上 葉如葡萄而小.
-	-	99 薛荔	蔓延樹木垣牆.
갈매나무목 포도과	果部·蓀類	100 蒲桃	亦作葡萄.

참고문헌

1. 1차 자료

柳僖, 『方便子書牘』.

柳僖, 『文通』,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45종본(MF No.35-11920~11923).

柳僖, 『文通』,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74종본(MF No.35-13455~13461).

柳僖, 『物名考』, 藏書閣 所藏本: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편), 『晋州柳氏 西坡柳僖 全書 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柳僖, 『物名考』, 鮎貝房之 所藏本: 日本天理大學朝鮮學會(編), 『朝鮮學報』 第16~20輯 影印.

李晩永, 『才物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재물보』, 한국학고사전총서 14,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李時珍, 『本草綱目』, 文淵閣 四庫全書本.

許浚, 『東醫寶鑑』.

高明(註釋), 『大戴禮記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2. 논저

김일권, 「19세기초 유희 『물명고』의 분류명 내원과 분류 체계 연구」, 『규장각』 59, 2021, 225~271쪽.

김일권, 「『재물보』의 자연물 분류 체계 고찰과 『광재물보』분류의 『본초강목』의 거성」, 『장서각』 49, 2023, 278~321쪽.

미키 사카에(지), 오준호(역), 『朝鮮医書誌(增修版)』, 대전: 문진, 2022.

백명훈·신상원, 「역대 본초서의 본초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36-3, 2023, 98~101쪽.

신중진,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물명고』와 『재물보』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 2014, 105~127쪽.

오보라, 「서파 유희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오보라, 「서파 유희 『물명고』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 『대동한문학』 58, 2019, 245~287쪽.

오재근·김용진, 「『동의보감』 「탕액편」의 본초 분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3-5, 2010, 58쪽.

장유승, 「조선 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 체계」, 『한국고전연구』 30, 2014, 171~206쪽.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 2014, 279~116쪽.
 조영준, 「유희의 『물명고』에 수록된 어휘의 분류와 집계」, 『진단학보』 137, 2021, 103~128쪽.
 조정아, 「『본초강목』과 『재물보』의 분류 체계와 어휘 항목 비교」, 『한국민족문화』 80, 2021, 3~41쪽.
 최경봉, 「『물명고』의 온톨로지와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 의미학』 17, 2005, 21~42쪽.
 홍윤표, 「『물명고』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2013, 167~211쪽.
 황문환, 「유희의 『재물보』 비관을 통해 본 『물명고』의 차별성: 1807년 유희가 이만영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2016, 79~113쪽.
 황문환·김정민, 「『재물보』의 이본 계열과 선후 관계」, 『국어사연구』 35, 2022, 175~213쪽.
 高橋亨, 「物名考解説」, 『朝鮮學報』 16, 1960, 193쪽.
 山田慶兒, 『物のイメージ・本草と博物學への招待』, 東京: 朝日出版社, 1994.
 山田慶兒(編), 『東アジアの本草と博物學の世界』, 京都: 思文閣, 1995.

3. 기타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https://mediclassics.kr>).

투고일 2024. 1. 7.

심사일 2024. 2. 7.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물명고(*Mulmyeonggo*), 재물보(*Jaemulbo*),

본초강목(*Bonchogangmok*), 본초학(*herbal medicine*), 분류 체계(*classification hierarchy*)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물명고』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물명고』와 『재물보』·『본초강목』을 미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물명고』 표제어 배열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물명고』와 『재물보』는 『본초강목』의 대분류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각 분류항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는 『본초강목』을 따르지 않았다. 『물명고』와 『재물보』는 오충설, 『동의보감』 「탕액편」의 배열 순서 등에서 영향을 받아, 동물에서는 ‘우충(羽蟲)-모충(毛蟲)-인충(鱗蟲)-개충(介蟲)-곤충(昆蟲)’의 순서로 표제어를 배열하고, 식물에서는 ‘곡부(穀部)’를 첫머리에 두었다. 이처럼 『물명고』와 『재물보』는 분류항 배열 순서가 비슷하다.

하지만 각 분류항 내의 표제어 배열에서, 『물명고』와 『재물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재물보』가 『본초강목』의 하위 분류항, 즉 ‘목(目)’의 배열 순서를 대체로 따른 반면, 『물명고』는 『재물보』·『본초강목』의 표제어 배열 순서를 대폭 수정했다.

『물명고』는 사물의 형태적·생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표제어 배열을 재조정하고, 때로는 표제어의 분속을 바꾸기도 했다. 유희는 『본초강목』 ‘목’에서 복합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사물을 분류·나열한 것에 문제점을 느끼고, ‘자연물의 속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표제어 배열의 체계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는 본초서의 지식·분류가 박물가에 의해 수용·변형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Abstract

The Arrangement of the Headwords in *Mulmyeonggo* in Comparison with *Jaemulbo* and *Bonchogangmok*

Oh, Bora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rangement of the headwords in *Mulmyeong-go* in comparison with *Jaemulbo* and *Bonchogangmok*. While *Mulmyeong-go* and *Jaemulbo* were influenced by the major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Bonchogangmok*, it was not followed with complete consistency in the arrangement of each classification term. *Mulmyeong-go* and *Jaemulbo* were influenced by the arrangement order of the “*Ochungseol*” and the *Dong-uibogam*, and the title words were arranged in the order “Uchung-Mochung-Inchung-Gaechung-Gonchung” for animals, and “Gokbu” was placed at the beginning of plants. Thus, the *Mulmyeong-go* and *Jaemulbo* have similar arrangements of classification terms. However, in the arrangement of the headwords within each classification term, there is a major difference between *Mulmyeong-go* and *Jaemulbo*: While *Jaemulbo* generally followed the arrangement order of the sub-classification term, that is, the “Mok” of *Bonchogangmok*, *Mulmyeong-go* significantly modified the arrangement of the headwords in *Bonchogangmok* by rearranging the headwords based on the morphologic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and sometimes changing the classifications of the headwords. Yu Hee had a problem with classifying and listing objects by applying the complex classification criteria in the “Mok” of the *Bonchogangmok*, and promoted the systematization of the headword arrangement based on the single criterion of “the nature of natural objects.” This shows how the knowledge and classifications of herbal medicine were accepted and transformed by polymaths.